Entertainment p/18

가을에 서태지 공연 볼수있다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제2977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돌아온 몬스터 22일 선발등판

해경 해체, 안행·해수부 대수술

"최종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수사·정보기능→경찰청
해양구조·구난→안전처
해양교통 관제→안전처
안행부 인사·조직→총리

김영란법 제정도 촉구
특별법 제정·특검도입
4·16 국민안전의 날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하며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권한와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눈물의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발표에서 희생된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고시제 폐지·수정 예고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피아'와 관련해서는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해 공직사회의 '철밥통' 역할을 해 온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넘어

정부 통계의 3배…현실과 괴리 너무 커

직업을 갖고 싶거나 있어도 이직을 바라는 '사실상 실업자'가 3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수치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241만4000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671만4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7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2568만4000명)를 제외한 인구가 실업자(103만명)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000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000명, 구직단념자 37만명 등은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이들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316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3.9%)과 사실상 실업률(11.1%)의 차이는 무려 7.2%포인트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는 바로 이같은 공식 통계치와 현실의 괴리가 판명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이른바 체감 실업률)를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훈기자 kmloo@

6·4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6·4 지방선거를 2주 가량 앞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한 직원이 투표용지 인쇄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UAE 방문 후 개각

총리 이어 안행부·해수부 교체… 대폭 가능성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뒤 "총리 인선과 후속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청와대에서 한 면담에서 "지금 검경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했다.

UAE 순방 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안전조직 개편과 관련해 개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청와대는 담화문 발표 이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시간표를 정리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실행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무상·안전 공약 난무 교육감선거

기자 수첩
윤 다 혜
(정치사회부 기자)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무상·안전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교육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노후학교 개선, 학교 주변 안전감시단 설치, 교육청 내 학생생활안전과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쏠리자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이 안전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은 또 표심을 얻기 위한 무상공약 카드도 꺼내 들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고, 같은 지역 김왕복 후보는 아침밥까지 주겠다고 나섰다.

정찬모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와 무상 유아교육 반제파 추진을,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유치원과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무상공약들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행될 경우 교육 예산의 쏠림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 후보들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 공약이 아닌 참교육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

등 돌린 박원순과 정몽준 정몽준 새누리당(오른쪽)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정책선거기원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가라앉아" vs "변화의 길 걸어"

정몽준·박원순, 첫 TV토론 격돌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19일 TV토론에서 첫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전 대책과 각종 개발 사업 구상 등 서울 시정에 대한 비판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다운 아이들이 스러져갔는데 이 죄의 업보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느냐"며 "열심히 일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사람은 빠져나가고, 장사는 안 되고, 범죄는 늘어나는 등 서울이 가라앉고 있다"며 "심각한데도 박 시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지난 2년6개월 서울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며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 됐고 시민은 시장이 됐으며 상식과 원칙, 권리와 균형을 내세워 수많은 갈등은 줄어들고 전시행정은 싹 없앴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h@

"우리 요청없이 日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19일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특히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밝혀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담은 보고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기자

뉴스&뉴스

31일 싱가포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김민석 국방대변인은 19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며 "31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정부 '北 아파트 붕괴' 위로전문 검토

● 정부는 북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북 위로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통상적으로 위로 전통문은 적십자 채널을 통해 주고 받아왔다"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재난 조직 '국가안전처' 탄생

해체·축소되는 해경·안행·해수부는 '패닉'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혔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밝힌 박 대통령의 구상은 국가안전처를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을 통합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도록 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박 대통령 담화 이후 해경과 안행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체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너무 충격적"이라며 "부디 직장을 잃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준기자 mjkim@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

이완구 "'유병언법' 추진…김영란법 제정도 빨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범죄자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며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출되기 전에 '유병언법'을 제정하겠다며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3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모그룹 부도 직후 부채 상환에 써야 할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지키려고 회사와 법적 책임 관계가 없는 아들과 지인을 이용해 차명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인수자를 선정할 때 옛 사주의 관계자를 배제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명 '유병언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며 "대가성이 없다 해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조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me@metroseoul.co.kr

신종자 가족 입주 준비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이 실종자 가족 임시 숙소로 마련된 조립식 주택에서 자원봉사자가 입주를 앞두고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파병 교대 8개월로 확대

해외 파병부대의 교대주기가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 현지 6개월 단위인 해외 파병부대 교대주기를 7월 임무수행 부대부터 8개월로 늘린다"고 밝혔다.

레바논 동명부대 15진과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8진, 남수단 한빛부대 4진이 우선 적용 부대다.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는 함정정비와 정비자원 등을 고려해 현행 교대주기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교대주기 변경은 임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선발과 교육 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행 6개월 교대주기의 경우 현지 적응과 철수 준비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돼 실제 임무수행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각드 준기자

착잡한 해경청장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겠다고 밝힌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에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브리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재판 배심원도 현장검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검증을 다음달 13일에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마사지숍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배심원들의 사실인정 판단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증은 재판의 연장이기에 녹화·녹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s@

유병언 '50억 골프채' 정관계 로비용

검찰 자금 흐름 단서 포착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등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정관계 로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모 그룹 회장인 A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친척관계인 A 회장이 서울의 한 골프숍에서 2008~2009년을 전후해 3년간 50여억원 어치의 고급 골프채 등을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검찰은 A 회장의 골프채 구입자금의 출처를 유 전 회장 일가로 의심하고 있다.

또 A 회장이 유 전 회장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수년간 고급 골프채 수백 세트를 구입해 정관계와 금융계 로비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골프숍과 A 회장의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골프숍 판매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윤다혜기자 yds@

'STX 뇌물' 전 서울국세청장 수사

송광조(6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사직했다.

강덕수(64·구속기소) 전 STX그룹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송 전 청장에게 2011년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줬다는 전직 그룹 임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해운·조선 부문을 중심으로 STX그룹 계열사들의 세무조사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감사원, 123함 정장 등 해경 3명 조사

해양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19일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등 직원 3명을 불러 초동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장 등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감사장이 차려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출두했다.

123정이 찍은 구조 당시의 동영상과 교신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끝낸 감사원은 이들을 상대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

직원들은 지휘부의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관피아 척결' 검사장 회의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21일 검사장회의를 열기로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 준기자

어린이집 주 55시간 '중노동'

교사들 근로기준 15시간 초과 …9%만 초과수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5.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초과한 것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8.9%에 불과했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치원 교사 771명과 어린이집 교사 77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주당 45.7시간, 어린이집 교사는 55.1시간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보육 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28.6시간, 어린이집 교사가 43.5시간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훨씬 많았다. 교육·보육을 위한 준비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9시간, 어린이집 교사가 6.2시간이었다.

초과근무는 유치원 교사의 42.8%, 어린이집 교사가 44.6%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받는 비율은 유치원 교사의 20.2%, 어린이집 교사의 8.9%에 그쳤다.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 정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5점 만점에 각각 3.6점, 3.7점이었다.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종종 느낀다'는 항목에는 모두 4점으로 높은 피로감을 보였다.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도 열악했다. 기관에 독립된 교사실이 있는 경우는 유치원 교사의 51.5%, 어린이집 교사는 13.6%뿐이었다고 답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물 먹인 염소·개 대량 유통

오염된 지하수 주입 평균 2kg 늘려

염소나 개를 밀도살한 뒤 사람이 못 먹는 지하수를 강제로 주입해 중량을 늘려 보양육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은 38억원대의 흑염소, 개 등을 밀도살한 뒤 중량을 늘려 보양식당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보양육 도매업자 이모(54)씨를 구속, 김모(44·여)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흑염소 4500마리와 개 7500마리 등 모두 1만2000여 마리(시가 38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시내 보양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기충격을 받은 염소나 개가 죽은 직후에 심장에 고압의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 마리당 중량을 평균 2kg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량이 늘어난 염소는 마리당 4만~5만원, 개는 2만원가량 더 받고 식당 등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jhj@

"성연의 큰 절입니다" 성년의 날인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교동 수원향교에서 전통성년례가 열려 수원공고 3학년 40여 명의 학생이 한복을 입고 성년례를 마련해준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사장 출근 저지 KBS 노조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길환영 KBS 사장을 태운 차량이 도착하자 막아서고 있다. 청와대 외압 논란 과 관련해 KBS 이사회는 "길 사장은 세월호 사건 계기로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짓밟아 왔다"면서 사장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갈수록 '콩나물 강의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을 초과하는 대형 강의 수가 이번 학기에 100개를 넘어섰다.

19일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는 올해 1학기 서울대가 개설한 강의 중 수강생이 100명을 넘긴 강의는 123개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수강생이 101~200명인 강의는 110개이며 200명을 넘긴 강의도 13개나 됐다.

서울대에서 100명 초과 대형 강의는 ▲2012년 1학기 94개, 2학기 76개 ▲지난해 1학기 98개, 2학기 78개였다.

특히 201명 이상 초대형 강의는 2012년 1, 2학기 각 10개에서 지난해 1학기 8개, 2학기 5개 등으로 점점 줄었지만 이번 학기에 13개로 세 배 가까이 많아졌다.

반면에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 수는 전 학기보다 200개 이상 줄어 '콩나물 강의실'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다혜기자 ydh@

'19억 횡령' 대웅 계열사 전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회사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차익을 빼돌린 혐의로 대웅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열사 부동산 매매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2009년 12월~2011년 5월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값을 비싸게 치르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구속기소)씨와 함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대웅제약 명의로 사들이면서 차액 2억4000만원을, 강남구 삼성동 땅을 대웅상사 등 명의로 사들이면서는 9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이들은 회사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계약을 하면 땅 주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뒤 돈을 절반씩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ydh@

서울 자동판매기 점검

서울시가 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길거리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길거리 등학지 소규모 점포 등 위생취약지역에 설치된 자판기는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고궁·도서관·터미널·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판기는 서울시가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등이다.

/윤다혜기자

강남구, 재활용 컨설팅 실시

서울시 강남구가 깨끗한 도시환경의 재활용을 위해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컨설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컨설팅은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된다.

성동구, 재도약 스쿨 운영

서울시 성동구가 베이비부머 세대 취업 준비와 성공 노하우 전수를 위해 '성동구 재도약 스쿨'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6월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성동구 거주자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와 퇴직 예정자, 퇴직자다.

불법 주정차 문자 서비스

서울시 도봉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차량 이동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했다.

홈페이지(http://parking.dobong.go.kr)에 접속해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metro Russia

кать из тюр ербурге мож

metro Brazil

Enem terá celulares e

수능시험 예방 금속탐지기 도입

브라질 교육부가 대입 수학능력 검정시험(Enem)에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금속 탐지기를 도입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것이며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장에 비치된 금속 탐지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metro Russia

장애인 배우 전용 극장 문 열어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시에 장애인 연기자들이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애인 배우 전용 극장이 문을 열었다. 장애인 극단의 예브게니 찌로프 단장은 "예상보다 우리 극단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지난달 치러진 단원선발 오디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밝혔다. 한 단원은 "휠체어를 타고 불편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렵지 않다"며 "이 극장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할 수 있을지 설렌다"고 말했다.

"한 시간 안에 교도소 탈출하라!"

죄수복 착용하고 숨겨진 힌트 찾아 빠져 나가는 이색 체험 인기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체험공간 '프리덤'에서 운영하는 이색 프로그램 '한 시간 안에 교도소를 탈출하라'가 화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죄수복을 착용하고 실제 교도소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공간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 정해진 시간 내 교도소를 빠져 나가야 한다. 참가자들은 힌트를 풀 때 침대와 간이 화장실만 설치돼 있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수감된 '죄수'와 의논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카메라 사용은 금지된다.

프로그램을 만든 카리나 리트빈치크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한 시간 동안 수감자가 된 관광객이 곳곳에 숨겨진 힌트와 수수께끼를 풀고 열쇠를 획득한 뒤 교도소를 탈출하게 된다"며 "게임은 삼삼오오 팀을 이뤄 진행되고 상상력과 재치가 있어야 탈출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리트빈치크는 "정년 넘어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평범한 지하 공간이 진짜 감옥으로 탈바꿈했다"며 "체험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인기를 얻어 기쁘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게임을 시작하고 십 분도 채 되지 않아 진짜 수감자가 된 느낌이었다"며 "교도관이 돌아올까 걱정되고 너무 무서워 머리가 하얘질 지경이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수수께끼를 같이 푸는 팀원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며 "가까스로 힌트를 얻어 문제를 풀고 교도소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트빈치크는 "이 프로그램에는 수수께끼를 풀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나 시간 측정 경보장치 등 컴퓨터 기술이 많이 사용됐다"며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상상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혹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할 것 없다"며 "도움을 요청할 경우 더 많은 힌트를 얻거나 심지어 수수께끼를 건너 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율리 솔기로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쓰레기로 의식주 해결 파리 '프리건족' 눈길

프랑스 파리에서 프리건족(Freegan)이 다양한 활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프리건족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식료품을 찾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27세인 카미유는 대형마트에서 버린 물건들로 프리건 생활을 꾸렸다.

나무상자에 오래된 과일, 야채, 냉동식품과 요거트를 가득 담아온 그는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한 대형매장에서 3년째 공짜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그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가져온다. 당연히 유통기한은 고려한다. 제품에 따라 유통기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신경 쓰는 편이다. 지난번엔 유통기한이 두 달 지난 훈제연어를 먹었는데도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1년전 리옹의 한 무단거주지에 살았던 그는 한 친구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버려진 제품이 많을 경우 이를 취합해 나누기 위해서다. 이후 파리로 온 그는 총 150kg에 달하는 식료품을 모았다. 다른 두 프리건 활동가와 함께 선별 작업을 진행한 그는 "쓰레기통 안엔 코스요리가 다 들어있다. 심태도 신선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달 쓰레기 통에서 찾은 제품을 모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벌인다. 하지만 이를 구경하는 행인의 표정이 좋지만은 않다. 기한이 지난 요거트, 제과부터 생리대까지 각종 물품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불쾌감을 주는 것. 한 청소년은 사진으로 찍은 뒤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것 같다"고 말했다.

/엘렌디 브뤼솔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전일>

코스피	코스닥
2015.14 (+1.70)	546.81 (-10.78)
금리(국고3년) 2.84 (전일 동일)	환율(원/달러) 1021.60 (-3.20)

뉴스&뉴스

원화 가치, 6년만에 최고

●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실질 실효환율로도 지난달 에비 6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지난 4월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2010년 100기준)는 110.9로 전월(113.46)보다 2.8%나 상승했다. 이는 2008년 4월(111.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명목 환율을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산출하는 환율로, BIS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통화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정기자

작년 하반기 통신감청 337건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감청) 조치가 337건으로 전년 동기(180건) 대비 87.2% 증가했다.

통신제한 조치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와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이메일·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등 176개 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감청활동에 협조한 건수가 337건을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282건(83.6%)로 압도했고, 경찰 50건, 군수사기관 5건 등이었다. /이재영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11 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711
2005년 1월 24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208

6·4 지방선거 '펀드' 앞다퉈 출시

은행금리보다 높아 단기간 고수익 기대
'무늬만 펀드'로 원금손실 가능성 우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선거 펀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선거펀드는 선거운동 활성화와 선거자금의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선거 펀드에 관심이 높다.

실제 선거 펀드를 내놓은 대부분 후보자들의 상품은 연 금리가 2.6~3.1% 정도로 시중 CD금리의 2.62%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 '정기 예·적금보다 만기기간이 짧아 투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름만 펀드일 뿐 금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증권사의 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라면 선거 펀드는 후보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 신청 또한 각 선거캠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약정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에 제한도 없다.

문제는 이 펀드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대차라는 점 때문에 추후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당선되거나 득표율 15%를 넘겨야 하는데 만약 10~15%의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칫 득표율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펀드라는 이름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미처 허가받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거펀드는 후보자와 개인 유권자의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으로 문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 후보자가 내건 공약과 당선 가능성, 이자율 등을 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아라기자 @metroseoul.co.kr

추락하는 코스닥 외국인 등반 매도에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10.78 포인트(1.93%) 하락한 546.81포인트로 장을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시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남자 32세 여자 30세

기업이 꼽은 취업 마지노선

남자는 32세, 여자는 30세를 넘으면 신입으로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525명을 대상으로 나이 많은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2.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해서'(54.8%,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내 위계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49.3%), '연봉 등 눈높이가 높을 것 같아서'(29.4%), '자기주관이 너무 강한 경력자들이 많아서'(25.5%), '취업이 늦은 문제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18.5%), '어린 임사동기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14.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에서 평가하는 나이 많은 신입사원의 기준은 남성이 평균 32세(4년제 대졸 기준), 여성은 30세로 집계됐다. 특히 나이 때문에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기업은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明기자 kimlee@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월평균 소득 135만원 이하 … 사회보험 안전판 확대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자금에 소득공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50%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질병, 사망·퇴임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2조원 가량의 기금이 축적돼 있다. /류주인기자

분당 리모델링 활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분당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성남시는 19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인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가 다음달 1일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공사 공모에 단독 입찰한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로 선정한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는 지난 2008년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박선옥기자

"성공하려면 떼거나 묶어라"

삼립식품·LG생건 사업구조 개편 소식에 주가 반등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너지를 낼 만한 사업 부문이나 자회사를 묶거나 떼어 낸 국내 기업들의 시도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립식품이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립식품의 주가는 사상최고가(8만8500원)를 새로 썼다. 장중 8만9000원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사업부문 분할에 있다. 삼립식품은 지난 16일 식품유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삼립푸드서비스앤드로지스틱스로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나머지 제빵, 식품소재, 프랜차이즈사업 부문은 종전대로 남는다.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기존 제빵 사업에서 최근 수년간 식자재와 건강식품, 밀가루,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한 삼립식품으로서는 이번 시도가 주식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셈이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LG생활건강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인수·합병 시도에 주가가 반응했다. 이날 LG생건의 주가는 사흘째 상승 마감했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LG생건이 미국 화장품 업체인 엘리자베스 아덴 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엘리자베스 아덴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만 8700억원에 달하는 100년 전통의 화장품 회사다. 최종 인수가격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LG생건이 이번 인수에 성공하면 회사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매출 증대 기대감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용 몰드 제작업체인 넥센산기를 지주회사로부터 가져오면서 사업 효율화 기대감이 일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넥센산기의 흡수합병 계획을 밝힌 뒤 1분기 실적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넥센타이어의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장중 최고 1만9000원대를 찍고서 내리 하락해 올해 4월 1만2000원대까지 밀렸다. 그러나 최근 이런 시도를 토대로 상승 시도를 하며 1만4000원대까지 회복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이같은 시도가 활발하며 반응도 양호한 것으로 봤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끼리 묶거나 자회사들간 지분가치를 교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가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이동 3사 영업정지 끝 보조금 과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SK텔레콤의 영업재개를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대리점에 관련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뉴시스

세월호 영향… 지난달 생명보험사 실적 20%↓

보험업계의 실적에도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4개 생명보험사의 지난달 초회보험료(보험 신계약에 의한 첫 번째 납입보험료) 실적은 지난 3월보다 평균 20.1% 급감했다.

특히 하나생명, 우리아비바생명, NH농협생명 등 은행계 생보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생명의 지난달 초회보험료 실적은 4억7200만원으로, 지난 3월 마감 실적(19억5100만원)보다 75.8% 감소했다.

NH농협생명과 합병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아비바생명의 지난달 신계약 실적은 7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실적(14억100만원)에 비해 48.6% 줄어든 수치다.

지난 3월 신계약 실적이 삼성생명에 이어 업계 2위로 올라선 NH농협생명의 지난달 초회보험료 실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NH농협생명의 지난달 신계약 실적은 150억7200만원으로 지난 3월 마감실적(280억5900만원)에 비해 46.3% 감소했다.

이들 생보사의 지난달 신계약 실적 급감은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상품) 영업 실적이 그 전달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4개 생보사의 지난달 방카 영업에 의한 신계약 실적은 전월 대비 평균 33.5% 감소했다. 이는 설계사(-17.0%)나 텔레마케팅(-14.0%) 채널의 영업 감소 폭보다 높다. /김은경기자 [illegible]

외환은행 노조 카드분사 반대 진정서 제출 외환은행 노조 대표자들이 19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로비에서 외환카드의 분사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와 의견서를 들고 민원 접수처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계은행 10년간 3조 본사로

순익 절반 이상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

외국계 금융사가 용역비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해마다 거액을 해외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 10년간 3조2500억원을 용역비와 배당금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용역비 1조9400억원, 배당금 1조3160억원 등 3조2500억원을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같은 기간 두 은행이 거둔 순이익 5조7800억원의 56.2%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 본사로 들어간 셈이다. 특히 두 은행은 영업점포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노조와의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본국 송금액을 줄이지 않았다.

용역비는 모그룹이 각 자회사에 경영자문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공동 경비를 말한다. 본사에 지출하는 기업이미지(CI) 비용, 전산서비스 이용료, 본사 광고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노조 측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도 용역비 지급은 급증했다"며 "지난해 순익 2191억원을 내고 해외용역비로 1370억원을 지급해 과도한 지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용역비 지출을 가장한 국부 유출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알리안츠생명은 30억~40억원을 용역비로 해외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순손실 가운데 약 340억원은 대규모 명예퇴직금 지급 때문"이라며 "본사에 내는 용역비는 투자자문 수수료"라고 전했다.

이보다 먼저 2011년에는 16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ING생명이 4000억원의 고배당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동 때문에 1000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용역비는 사용 목적과 내역이 불투명하다. 비용으로 잡혀 10%의 부가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간주해 배당금보다 해외 반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윤인지기자

공인인증 없이도 카드결제 가능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소비자들은 신용·직불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거나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 이체 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다.

그간 카드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체들은 공인인증서를 쓰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채아은기자 alive0203@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확보와 UHD TV 보급 확산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근 보급형 UHD TV 출시와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보급 확산이 기대된다. /삼성전자 제공

<콘텐츠 수급> <UHD TV 판매>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전용 채널 개국에도 반응 미미… 보급 함께 이뤄져야

케이블TV 업계가 초고화질(UHD) 방송 전문 채널 '유맥스(UMAX)'를 개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콘텐츠와 UHD TV 보급 부족으로 UHD 시장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

19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체 TV에서 UHD TV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15%선이다. 특히 50인치 이상 TV 중 UHD TV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10% 밑돌다 40%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UHD TV 보급률이 낮은 만큼 유맥스 채널에 가입한 고객 수도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콘텐츠도 부족해 재탕, 삼탕 방송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확보 가능한 UHD 콘텐츠는 약 200시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맥스 채널도 1일 4시간씩 총 5회에 걸쳐 반복된 콘텐츠를 순환 편성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 업계가 선두에 서서 세계 최초 UHD 방송 상용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지상파에 대한 협력의 목소리도 높다. 케이블 업계만으로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자 편의 확보와 보다 다양한 장르의 UHD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실제로 현재 지상파는 방송 콘텐츠의 70~80%를 책임지고 있다. 그만큼 기술적 역량이나 투자 여력도 케이블 업계에 비해 풍부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상파에서는 700MHz 주파수 대역이 방송용으로 확보돼야 본격적인 UHD 방송 콘텐츠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지상파 업계의 UHD 콘텐츠 생산에도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콘텐츠 수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 UHD 방송에 뛰어들고 있는 IPTV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부터 SK브로드밴드는 UHD TV에서 셋톱박스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UHD 셋톱프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확보한 UHD 콘텐츠는 450분에 불과하다. 물론 SK브로드밴드 측은 UHD 콘텐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공모전 및 단편영화제 등을 통해 UHD 콘텐츠 제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UHD 서비스 이용자들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KT 역시 '올레tv'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UHD 방송 시범서비스를 다음달 중 선보일 예정이지만 콘텐츠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스마트워치 세계시장 70%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조사 | 1분기 50만대 판매

지난 1분기 동안 팔린 스마트 손목시계(스마트워치) 10대 중 7대가 삼성전자 제품으로 조사됐다.

19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1분기 세계 스마트 손목시계 시장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 71.4%에 해당하는 50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100만대, 시장점유율 52.4%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2월 말 삼성 기어2, 삼성 기어2 네오 등 후속 스마트 손목시계 제품군이 4월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선도업체인 삼성전자의 이같은 움직임이 갤럭시 스마트폰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SA는 "갤럭시 기어의 상대적으로 빠른 판매량 증가는 갤럭시 노트3 등 스마트폰과의 적극적인 묶음 판매(co-building)와 한국, 미국, 영국, 호주에서의 집중적인 마케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 기어2의 출시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 시장 선도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에게 있어 유일한 위협은 몇달 내에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애플의 아이워치(iWatch) 뿐"이라고 내다봤다.

/서승희기자 ssh@

인도, 新정부 '모디노믹스' 정책 펼친다

경제활성화 나설 듯…우리 기업 中 대체시장 주목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기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정부가 소위 '모디노믹스'로 불리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예고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디노믹스(Modinomics)는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주지사가 이끄는 제1야당 인도국민당이 압승하며 나온 용어로 모디의 이름과 경제학의 합성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모디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모디는 2001년 주지사 취임부터 세 차례 연임기간동안 친기업 정책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켰다.

S&P자회사인 크리실의 다마커티 조쉬는 "인도 경제가 9%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구조개혁과 경제의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5년간 6.5%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런 기대감은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묻어난다. 전경련이 최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선 이후 출범할 인도 신정부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도 총선 후 신정부 출범이 인도의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개선될 것' 62.7%, '변화없음' 37.3%인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현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주요 비즈니스 애로요인으로는 환율변동(26.4%), 행정규제(17.9%), 내수부진(11.9%), 높은 세율 및 복잡한 조세(8.0%)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인도 차기 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행정규제 완화(34.3%), 조세부담 경감 및 간소화(22.4%), 산업인프라 확충(14.9%), 금융·외환제도 개선(10.4%) 등의 순서를 보였다.

조현만 신흥시장담당은 "선진국 경기회복이 불확실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개척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총선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우리 기업에게 인도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모디가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만든 경험을 살려 ▲전력 등 인프라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및 소작가격 ▲100개의 스마트도시 건설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으로 도로·철도 건설 및 전력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업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중장비·일반기계, 중전기기 등의 인도 수출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도 신정부의 출범으로 전력 및 건설 등 인프라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으로 소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ook@metroseoul.co.kr

기아차, 글로벌 누적판매 3천만대

52년만의 쾌거…경부고속도로 175번 왕복

기아자동차가 5월 중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 3000만대 고지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4월말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 2990만대를 달성한 기아차는 올해 국내외 월 평균 판매량이 26만여 대에 달해 5월 중 글로벌 누적 판매 3000만대 돌파가 확실시 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아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 3000만대 기록은 1962년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3륜 화물자인 K-360을 생산·판매한 지 52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기아차는 지난 2003년 1000만대, 그로부터 7년 만인 2010년 2000만대를 돌파했다. 이번 3000만대 고지에 올라서기까지는 4년이 걸렸다. 작년 한 해 글로벌 282만대를 판매한 기아차의 누적 판매 기록 행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기아차가 지금까지 판매한 3000만대는 기아차 베스트셀링카인 K5(전장 4845mm 기준)를 일렬로 늘어놓을 경우, 우리나라 최장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416km)를 175번 왕복할 수 있으며, 지구 둘레(4만 km)를 3.6바퀴 돌 수 있는 거리와 맞먹는다.

단일 차명을 사용한 모델별 누적 판매는 1987년 출시해 소형차급 대표 모델로 인기를 모은 프라이드가 올해 4월말 기준 346만대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1993년 출시한 승용형 SUV 스포티지와 2002년 출시한 중형 SUV 쏘렌토가 각각 311만대, 202만대 판매됐다.

기아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 3000만대 기록은 수출이 주도했다. 올해 4월말까지 수출에서만 1360만여 대를 기록해 전체 누적 판매 대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정내비기자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1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내 하이마트에서 열리고 있는 선풍기 할인 대전 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선풍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엑스박스 원' 전기료 20만원 더 내야

연간소모량 1위…PS4>위 유 순

콘솔이라 불리는 가정용 게임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등극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엑스박스 원'만 해도 연간 20만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미국의 비영리기구 '자연자원방어위원회(NRDC)'는 엑스박스 원의 연간 소모 전력량이 289kWh라는 실험 결과를 19일(한국시간) 공개했다.

소니의 콘솔 'PS4'의 연간 소모전력량은 181kWh, 닌텐도의 '위유'는 37kWh였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적용된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력(저압) 전기요금표에 따르면 누진제 최고 구간 전력요금이 kWh당 709.5원인 만큼 엑스박스 원으로 생기는 연간 전력요금 추가분이 20만5000원에 이를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고해상도(HD)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볼 경우 엑스박스 원의 추가 소모 전력은 소니 PS4(89와트)보다 다소 낮았으나 애플TV는 추가 소모 전력이 단 2와트에 불과했으며 구글 크롬캐스트, 아마존 파이어TV 등도 2~3와트 수준이었다.

문제는 MS가 엑스박스 원의 최대 강점으로 '올인원 엔터테인먼트'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기기를 제대로 쓰려면 TV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모 전력 문제가 PS4나 닌텐도 위 유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현대산업개발, 수도권 2개 단지 동시 분양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3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경기도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에 아현 아이파크와 서천2차 아이파크를 동시 분양한다. 아현아이파크는 서울 도심 속에 교통망과 편의시설을 갖춘 입지를 갖춰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서천2차 아이파크는 서비스 면적은 늘리고 수납공간은 최대한 확보한 전용면적 75㎡ 주택형의 틈새상품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현 아이파크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3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59㎡~111㎡ 497세대 가운데 130세대가 일반에 분양되며 준공 예정일은 2017년 1월이다.

아현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마포구 일대는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탁월한 교통망과 인근에 위치한 편리한 생활시설의 영향으로 최근 거주 및 투자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아현 아이파크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2호선 아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단지다.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밀집지역인 공덕·여의도·시청 일대로 접근성이 탁월하다. 출퇴근시 혼잡함을 피할 수 있어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숙명여대 등 명문 대학교가 인근에 있다. 북한산 시설학교인 아현초등학교와 아현중학교를 비롯해 봉래초등학교,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춰 자녀를 둔 주부의 관심도 올라갈 전망이다. (분양문의 02-562-9000)

/박선옥기자 [illegible]

타운하우스 무덤 죽전, '부활 행진곡'

고분양가로 잇단 분양 실패후 단독주택용지 '기지개'
기존 성공 사례 벤치마킹 상품구성·분양가 등 조정 나서

과거 타운하우스의 무덤으로 전락했던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던 연립형 타운하우스의 공급에 한계를 느낀 건설사들이 합리적 가격의 단독주택 단지로 다시 개발에 나서면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죽전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사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죽전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용인 죽전교차로에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너른 부지다. 애초 대규모 타운하우스촌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20억원이 넘는 연립주택의 분양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현재는 절반가량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존에 '솔레뉴파크', '드림하우스' 등 고급 타운하우스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공급된 단지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공사가 중단됐거나 착공하지 못한 단지들도 방향을 바꿔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개발에 나선 곳은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루시드 에비뉴'다. 이 단지는 대지 면적만 2만1804㎡ 규모로 분당권(분당·판교·죽전·수지) 최대 단독주택 부지다.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약 40%의 공정을 마쳤다. 지난 10일 샘플하우스를 오픈한 뒤 본격 분양에 나섰다.

당초 이 부지는 영조주택이 '웰리드'라는 최고급 연립주택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곳이다. 이를 대림 D&I가 2012년 2월 인수해 연립주택을 모두 허물고, 단독주택 73가구로 설계 변경해 공사에 나섰다.

용인 죽전에서 사업을 재개한 '루시드 에비뉴' 현장

연립주택 분양 당시 공급가는 20억원을 웃돌았지만 대림 D&I는 분양 실패의 원인을 비싼 분양가와 잘못된 상품 구성으로 판단하고, 분양가를 기존 대비 60% 수준인 평균 12억원 대로 낮춰 책정했다.

대림 D&I 관계자는 "예전에 지었던 연립주택은 용적률을 최대화해 세대수만 늘리고, 초고가로 공급한 탓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강남과 가깝고 판교에 단독주택 부지를 사서 직접 짓는 가격의 60%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만큼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루시드 에비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변 단지들도 속속 곤두세우며 사업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미완기지로 연립주택으로 분양했다가 실패한 '힐데스하임2차' 부지는 사업주 원건설이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 연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2008년 분양에 나섰다가 사업을 접었던 '빈센트힐'은 지난해 말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요청했고, '레이크파크 빌리지'도 사업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죽전지구의 A공인 관계자는 "루시드 에비뉴가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힐데스하임과 빈센트힐도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루시드 에비뉴 분양이 성공하면 이 일대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로 재조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선옥기자 pso7821@metroseoul.co.kr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7조6천억

작년 3월보다 17.1% ↑ … 공공부문 증가율 최고

대한건설협회는 19일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7조646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7.1%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1~3월 누계실적은 지난해보다 35.4%가 증가했다.

3월 국내건설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999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1.4%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지산지수(양산현내성현 환경정비사업), 농림수산(산동-금하지구 논은용수 개발사업), 도로교량(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공사) 및 철도궤도(경부고속철노노반신설공사), 상하수도(다링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시설공사) 등의 수주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증가한 62.6%를 기록했으나 전월보다는 8.6% 감소했다.

공공건축은 주거용에서는 신규주택(위례 신도시 아파트)과 공장 등의 작업용 건물(세종변전소 건축)과 학교·병원·관공서(정부청사 보강공사, 서울대 연구동공사, 동의함누리원 단의카을 엠전지구 조성사업) 물량이 증가해 상업용건물 점포가 부진함에도 지난해 동기대비 32.7%가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3조64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1% 감소. 토목공종은 항만-공원(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상부공사)과 철도-궤도(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공사) 공종에서 민간투자사업 발주물량이 증가했으나, 여타 공종들의 부진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7.7% 감소했다.

건축공종은 신규주택(구리 갈매지구 공동주택, 함산물금 비치 반도 유보라 5차 아파트)과 재개발건축(부산 연산2구역 공동주택 개(개발)공장 증가로 작고 병원 관공서와 작업용 건물의 부진에도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3조3972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1~3월 누계실적은 전년보다 35.4% 상승한(5조 8493억원 증가) 22조 3643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은 78.1% 증가(6.5조원 → 11.7조원), 민간부문도 주거부분의 약진으로 7.2% 증가(9.9조원 → 10.6조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1.4분기에 각 정부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단체의 수주 증가, 특히 각 지역 SOC 물량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78.1%가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비중이 가장 큰 주거용(신규주택 및 재건축 재개발주택 등)이 지난해 경기부진을 털고 지난해보다 52.7% 증가한 5조2691억원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물도 12.8% 증가했다. /박선옥기자

대우, 이라크서 5.5억 달러 플랜트 수주

대우건설이 이라크에서 지난해 2건의 대형 공사에 이어 올해도 5억4580만 달러의 대규모 원유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주에 위치한 Zubair Oil Field에서 기존 Oil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Zubair DGS 프로젝트의 세 개 패키지(North, Center, South) 중 남측 패키지 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총 공사비는 5억4580만 달러(약 5602억원)이며, 발주처는 ENI Iraq Bv(ENI, Occidental, KOGAS, Missan Oil Company 컨소시엄)이다.

DGS(Degassing Station) 플랜트는 지중에 있는 퇴적물과 모래·가스 등으로부터 원유를 분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분리된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등이 생산된다.

대우건설은 관계자는 "이라크에서는 원유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Up-Stream 분야에서 추가 공사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공사의 수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대우건설이 원유시설 공사를 수주한 이라크 DGS 현장 위치도.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청약통장을 꺼내든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16일 문을 연 미사강변 더샵 리버포레 견본주택을 찾아 분양 상담을 받고 있는 방문객들의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묵혀둔 청약통장 활용 호기

하반기 역대 최대 분양 … 자금·자격·가격 살펴야

하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물량이 풀린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이후 전국적으로 200개 단지 15만1870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 회사가 분양 물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다.

이처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오랫동안 묵혀뒀던 장롱 속 청약통장을 만지작거리는 수요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분양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목적이 시세 차익에 있는지, 실거주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거주할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에 따라 상승폭 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세 차익을 위해 접근했다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라도 하우스푸어가 되고 싶지 않다면 자금여력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3.3㎡당 최소 1500만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된다. 신규분양이 활발한 동탄2신도시, 김포, 시흥 배곧신도시 등은 서울 전셋값 수준인 1000만원 전후로 접근 가능하고, 미사강변도시는 1300만원 안팎이 들어간다.

분양가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분양받을 지역의 범위까지 좁혔다면 국지적인 개발호재 및 시장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또 청약할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인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유망기업은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 자회사?

양사 M&A 가속화…애플·삼성 방관 모드 힘들듯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 5억명의 액티브 유저를 확보한 세계 최대 SNS 브랜드 페이스북이 펼치는 M&A 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더 뛰어난 콘텐츠를 가진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먼저 구글은 비디오게임 중계 사이트 트위치(www.twitch.tv) 인수를 추진 중이다.

트위치는 201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회사로 이용자들이 비디오게임 플레이 영상을 올리거나 자신의 게임 플레이를 생중계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월 사용자는 4500만명 수준으로 매달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다. 국내의 '온게임넷'이나 '아프리카TV'와 유사한 서비스로 보면 된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미국 주간지 버라이어티는 구글의 트위치 인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양사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협상 초기단계라는 설명이다.

트위치 인수에는 10억 달러(약 1조200억원)를 웃도는 거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현금으로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언론의 중론이다.

구글은 트위치 서비스를 유튜브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인터넷 스트리밍 1위인 유튜브가 게임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더할 경우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비디오 채팅 앱 '슬링샷'을 개발 중이다.

당초 페이스북은 영국의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을 인수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서비스를 견제하기 위해 이에 새로운 앱을 선보이기로 한 셈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지난해 스냅챗을 인수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 회사를 창업한 에반 스피겔과 접촉했으나 실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이 슬링샷 개발 작업을 몇 개월째 진행 중이라고 같은 날 전했다.

FT에 따르면 슬링샷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작동하는 것이 장점이다. 사용자가 화면을 누어 지워진 다지 1년 짧은 비디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슬링샷은 이르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유용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에 흡수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도 그렇지만 삼성과 같은 국내 기업들도 M&A 전쟁의 구경꾼으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20만원대 LTE폰 LG전자는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보급형 LTE스마트폰 LG F70을 출고가 27만9400원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4.5인치 IPS디스플레이와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2440mAh 대용량 착탈식 배터리를 장착했다. /LG전자 제공

꼼꼼IT리뷰

■올림푸스 스타일러스1

광각에서 망원까지 하나로 끝!

"렌즈를 바꿔 끼울 필요없이 광각에서 망원까지 찍을 수는 없을까."

DSLR(디지털일안반사식)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필요에 따라 렌즈를 가방에서 꺼내 바꿔 끼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림푸스가 최근 출시한 콤팩트 하이엔드 카메라 '스타일러스1(STYLUS1)'은 이같은 불편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 소위 '물건'이다.

줌 전역에서 f2.8의 밝은 고정 조리개를 유지하는 대구경 렌즈를 장착해 광각부터 망원을 아우르는 초점거리(28~300mm)를 지원한다. 28㎜ 광각으로 한강시민공원 풍경을 한눈에 담으면서 동시에 300㎜ 줌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까지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망원접사 기능도 훌륭해 나무 위에서 흔들리는 꽃의 모습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콤팩트 카메라에서는 맛보기 힘든 수동의 재미도 풍성하다. 상단의 커맨드 다이얼과 렌즈 테두리 링을 조작하면 조리개값이나 셔터 스피드 등을 조작할 수 있다.

특히 와이파이 연동기능을 이용하면 스마트한 사진 촬영도 가능해진다. 올림푸스의 무료 모바일 앱 '오아이쉐어'를 내려받은 스마트폰으로 촬영 모드, 셔터스피드, 화이트밸런스, 노출 조작은 물론 줌까지 조절할 수 있다. 주변사람의 도움없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멋진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찍은 사진은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유할 수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도 크기가 애플의 아이폰5S 정도에 불과한 116.2mm란 점이다. 두께 56.5㎜, 무게 402g에 불과해 핸드백은 물론 남자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다만 콤팩트 카메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비싼 70만원대 후반 가격은 부담스럽다. /이국명기자 kmlee@

미러리스 1위 소니 전체 1위 캐논 추월?

4K 풀영상 촬영 등 프리미엄 디카 2종 출시

미러리스 카메라 부동의 1위 소니가 굳히기에 들어간다. 아울러 렌즈교환식 1위 캐논과의 격차가 5%P로 좁혀든 만큼 역전을 노려본다.

A7S는 1220만 화소의 35mm 풀프레임 엑스모어(Exmor) CMOS 센서와 신형 이미지 프로세서 비온즈 엑스(BIONZ X)를 탑재해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제공한다.

특히 풀프레임 카메라 중 가장 높은 ISO 409600의 초고감도 능력은 기존 카메라가 촬영하기 어려웠던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저노이즈로 최고의 화질을 선사한다.

또 소니만의 전문 동영상 촬영 기술을 집약시켜 최고의 영상 촬영 능력을 선보인다. 세계 최초로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 전체를 활용한 동영상 촬영 능력은 탑재해 모든 프레임에서 안정적이고 디테일이 풍성한 영상을 만든다.

특히 외장기록 장치를 활용할 경우 4K(QFHD 3840×2160) 해상도의 초고화질 영상 촬영까지 가능해 전문 영상 촬영 장비로도 손색이 없다.

A7S의 출시는 6월말 예정이며 가격은 259만9900원이다. /박성훈기자

윙또 '국민게임' 계보 잇는다

배화점·문화상품권 등 이벤트도 풍성

모바일 게임 '윙또 포 카카오(for Kakao)'가 국민게임의 계보를 이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쿠키소프트는 '윙또 포 카카오'가 시전예약 접수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예약자 2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18일간의 시전예약 기간 중 예약자가 10만명에 육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16일 정식 출시 이후에도 게이머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윙또 포 카카오'의 이같은 인기는 2014년 '제1회 게임인(人)상' 대상을 받으며 이미 작품성과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300만명 이상이 즐긴 인기 온라인 게임 '윙또'를 모바일게임으로 변신시키며 온라인게임의 완성도에 모바일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쿠키소프트 관계자는 "기존 온라인 버전에서 호평 받았던 간편한 조작방식과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모바일게임에 그대로 계승해 스릴 넘치는 조작의 재미가 일품"이라며 "게임업상 심사위원들로부터 다 함께차차차, 윈드러너, 쿠키런으로 이어진 국민 캐주얼게임의 계보를 이을만한 게임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쿠키온라인은 25일까지 '윙또'를 내려받기만 해도 카카오톡 유료 이모티콘을 전원 무료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또 친구를 초대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을 나눠준다. 29일까지 선착순 500명 연예 10레벨을 달성하면 1만원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칸'에 간 블레이크 라이블리

'가십걸'의 그녀, 레드카펫 위 매혹적인 '팔색조' 그녀의 뷰티 노하우는?

지난 14일 제67회 칸 국제영화제가 12일간의 일정으로 화려하게 개막했다. 올해 칸 레드카펫의 뷰티룩은 '빛을 받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로레알파리 모델로 새로이 발탁된 할리우드 최고의 글래머러스 뷰티 아이콘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단연 인기였다. 그녀는 매일 새 메이크업을 선보이면서 레드카펫을 더욱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빛내 관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장혜선기자 hdune0414@metroseoul.co.kr

LOOK 1 엘레강스 스모키 메이크업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선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우아한 여배우의 모습 그 자체였다. 와인색의 선이 강조된 드레스를 선택한 그녀는 이에 어울리는 업스타일 헤어와 함께 음영이 강조된 브라운 톤의 세미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으로 세련미와 우아함의 정점을 완성했다.

LOOK 2 러블리 샤이니 메이크업

이튿날 두 번째 레드카펫에서는 전날과 완전 다른 룩을 선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 비즈 장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반짝임이 가득한 드레스와 함께 자연스러운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반짝이면서 은은한 핑크 립이 어우러진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모았다.

LOOK 3 고저스 레드 메이크업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마시막 공식 일정인 3일째 레드카펫에서 그녀의 배우자이자 로레알파리 맨 엑스퍼트 모델 라이언 레이놀즈와 함께 레드카펫에 섰다. 깔끔하게 올린 업스타일 헤어에 레드 립 하나로 포인트를 주고 깔끔한 블랙 드레스를 입어 매혹적이고 당당한 여배우의 자태를 보였다.

◆라이블리의 마스카라

로레알파리 비터플라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7.1㎖/1만5000원대). 비대칭형 브러시가 나비 날개처럼 활짝 펼쳐진 컬업 볼륨을 선사하는 롱래쉬 볼륨+컬링 효과의 마스카라다.

◆라이블리의 글로스 틴트

로레알파리 샤인 카레스 글로스 틴트(6㎖/1만6000원대). 약 25% 이상의 수분 베이스의 컬러가 선명하게 물드는 글로스 틴트.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은은한 핑크 컬러의 '600 비너스'를 선택했다.

◆라이블리의 립스틱

로레알파리 컬러리쉬 모이스트 매트(5㎖/1만8000원대). 매트 립스틱의 세련된 질감과 선명한 컬러에 보습감이 더해진 립스틱이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선택한 컬러는 '블러디 메리(RW 512호)'다.

실속 있는 '건강 선물' 어떤게 좋을까

화려한 것보다 건강기능식품이 대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 가족이나 스승 등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화려한 선물보다 건강을 기원하는 실속 있는 '똑똑한 건강 선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선물받는 상대 고려해 선택해야

먼저 부모님 세대를 위한 단골 선물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그중 고려은단의 '비타플렉스'는 성별에 따른 맞춤형 종합 비타민으로 어른에게 선물하기 안성맞춤이다. 비타플렉스는 성별에 따라 제품이 세분화돼 있으며 13가지의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갱년기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는 갱년기 치료제를 추천한다. 동국제약의 '훼라민Q'는 생약 복합제로 식물 성분을 이용해 부작용이 적다. 또 훼라민Q에 함유된 '블랙코호사'는 갱년기 증후군에 좋으며 '세인트존스워트'는 우울증과 불안·초조 등의 심리적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만약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대약품의 경구용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S 캡슐'이 적당하다. 마이녹실S 캡슐은 모발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케라틴'과 'L-시스틴' 등으로 모발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의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LG생명과학의 '리튠'은 다양한 라인업이 강점이다. ▲연령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유기농 원료를 담은 리튠 멀티비타민&미네랄 ▲혈행 개선을 위한 리튠 프로오메가3 ▲눈 건강을 위한 리튠 프로-아이 ▲간 건강을 위한 리튠 프로-리버 ▲건강한 뼈를 위한 리튠 프로-본 등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마카오 진출 기념식 성료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마카오에서만 6개 호텔 브랜드 1만3000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샌즈(LVS-NYSC) 그룹이 지난 16일 오후 샌즈마카오호텔에서 마카오 진출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샌즈 마카오를 개장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인도, 태국, 미얀마, 대만 등 세계 각국의 기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아델슨 회장이 이끄는 라스베이거스 샌즈(LVS-NYSC) 그룹은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팔라조, 샌즈 엑스포, 필라델피아 베들레헴 등 미국 호텔 운영 사업 외에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카오엔 자사의 최초 설립 호텔인 샌즈 마카오를 비롯해 베네시안 마카오·포시즌·샌즈 코타이 센트럴-홀리데이인·콘래드·쉐라톤 호텔 등 총 6개 호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현재 건축 중인 3000 객실 규모 파리지안 호텔이 완공되면, 1만6000 객실 규모의 라스베이거스 형태 관광단지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코타이 스트립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계획은 마카오 현지에서 비행시간 5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중국·인도·한국·일본·베트남·태국 등 세계인구 65%를 차지하는 30억 명의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마카오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크고 화려한 가족단위 복합 카지노 리조트 단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샌즈 그룹의 전문분야인 MICE 시설과 함께 쇼핑과 휴식, 카지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완벽하게 갖춘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라는 관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룹 측은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회장 겸 상장 법인인 '샌드 차이나'의 에드워드 트레시(Edward Tracy)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과 레저의 세계 중심에 선 마카오의 성장에는 샌즈그룹이 있었으며 지난 10년간 이룩한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는 자리"며 "스포츠와 영화, 음악, 오락 등 엔터테인먼트 전략을 실행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마카오에 더 이익을 주는 개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샌즈그룹 아델슨 회장은 일본에 10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를 밝힌바 있고, 우리나라에도 투자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마카오=김경일기자 pmw@metroseoul.co.kr

나들이는 맛있는 오뚜기 제품과 함께

여름 휴가철 간편한 레토르트 매출 늘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각 식품업계에서는 한 끼 식사를 그럴듯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즉석식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즉석식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인스턴트 수준의 식사를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언리필은 기본, 신선하고 풍부한 재료로 맛도 만점인 데다 저렴한 가격까지 휴가객들을 만족시키는 즉석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즉석식품의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매출이 30% 이상 증가한다. 특히 오뚜기의 레토르트 제품인 '3분 요리'의 매출은 매년 5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캠핑족의 증가와 주5일제 정착으로 매년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레스토랑 식사를 직접 간편하게

레토르트 제품이 최강자로 잘 알려진 오뚜기의 '맛있는 오뚜기밥' 시리즈는 일반 순수밥과 잡비, 리조또 등 총 20여종의 제품으로 구성돼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했다. 이 제품은 용기의 리드지를 벗기고 소스를 부어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살짝 익히기만 하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웰빙 트렌드에 맞춰 선보인 오뚜기 '3분 백세카레'는 기존 카레보다 강황 함량을 50% 정도 높이고 올리브유로 볶은 양파와 마늘에 일다지방의 천연 향신료를 조화시킨 제품이다. 카레와 짜장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오뚜기 '그대로카레·짜장'이 휴가철 인기식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올해는 몸에 좋은 렌틸을 주원료로 한 '3분 렌틸카레·짜장'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저칼로리 건강 라면 여성에게 인기

저칼로리 건강 라면 오뚜기 '컵누들'은 일반 컵라면 열량의 반도 되지 않으며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 들어있어 몸매를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녹두당면을 재료로 사용해 칼로리를 낮추면서 매콤한맛, 우동맛, 매운찜닭맛, 계란탕맛, 새우탕맛 등 5가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10일간의 다이어트' 프로모션을 위해 출시한 '컵누들 10입팩'도 올 여름 인기 상품이 될 전망이다.

◆휴가철에 딱! 씻어나온 오뚜기쌀

이외에서도 밥과 반찬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씻어나온 오뚜기쌀'을 추천한다. 씻을 필요 없이 바로 물만 부어 밥을 지을 수 있는 씻어나온 오뚜기쌀은 쌀 표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씻는 물의 강도를 조절해 빠르게 씻어낸 뒤 깨끗한 바람으로 건조함으로써 쌀 표면의 표분층과 잔유물만을 씻어내는 공법을 사용했다. 1kg~3kg짜리 소용량 제품부터 10kg, 20kg 대용량 제품도 있다. 2004년 출시 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연간 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백반뿐 아니라 반찬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미역국, 북어국 등 물만 넣고 끓여 먹는 즉석국을 시판하고 있어 얼큰하고 담백한 국거리도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다. 또 '옛날 볶음장 참치' '뚝딱 김치 찰남지밀 참치' '뚝딱 청양고추 참치'는 특화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야외 캠핑 시 반찬으로 인기다.

◆후식도 야외에서 즐길 수 있어

누룽지도 이젠 밥솥에 눌은밥을 끓여 먹는 수고 없이 뜨거운 물만 부어 먹을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 오뚜기는 국내산 쌀 100%만을 사용한 '옛날 구수한 누룽지'를 출시해 40~50대의 입맛까지 만족시키고 있다. 무쇠 판에 직접 구워낸 누룽지의 깊은 맛은 물론 바삭바삭한 특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뜨거운 물만 부어 4분이면 완성된다.

오뚜기의 '힐링타임아이스티'는 천연 과일 과즙의 함량이 높아 유자·복숭아·매실·오미자·석류의 진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며 홍차를 이상적으로 블렌딩해 아이스티 본연의 맛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스틱에는 비타민C 1일 영양소 기준치 100%에 해당하는 100mg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으며 캐러멜 색소를 넣지 않아 믿고 마실 수 있는 제품이다.

/정혜인 기자

'청청 패션'부터 시계까지…'블루' 바람

상·하의 모두를 데님 소재로 매치하는 청청 패션. 더이상 '촌뜨기' 촌스러운 옷차림이 아니다. 면 소재의 편안함과 2014년 봄·여름 시즌 주목 받은 블루 색상이 TV속 연예인들은 물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청청 패션이라고 무조건 같은 색상의 아이템으로만 매치하면 자칫 촌스러운 느낌을 풍길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톤온톤 매치를 추천한다.

여성들은 데님 소재의 슬리브리스 셔츠에 스커트를 입고 셔츠 밑단을 묶는다면 허리 라인을 돋보이게 해 여성스러움을 뽐낼 수 있다. 힙 라인에 자신이 없던 체형이라도 플레어 스커트가 시각적으로 보완해 스타일과 실루엣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

그래도 청청 패션이 부담스러운 남성들은 블루 색상이 포인트를 주는 시계로 패션감각을 드러낼 수 있다.

푸른 색과 실버 컬러가 매치된 시계는 세련된 느낌을 줘 격식있는 정장 차림에 어울린다.

/김학철 기자

강강술래, 연령별 실속선물세트 인기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전 관람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가정의 달을 맞아 선보인 실속 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누들의 건강을 챙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전년보다 선물세트 매출이 30% 이상 올랐다.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ssulaimall.com)과 전화 주문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영양간식 갈비맛 왕고기 육포 6인 세트는 2만1600원, 12인 선물세트는 4만42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통등심 돈가스에 모짜렐라 치즈돈가스, 칠칠 한우떡갈비, 특일자 한돈너비아니가 각각 1세트씩 구성된 어린이 선물세트도 40%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비빔건 장난감을 선물로 증정한다.

또 영광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1개월 이상 건조한 국내산 보리굴비도 10마리 세트는 10만4000원, 20마리 세트는 7만2000원에 2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6월 22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미켈란젤로전' 티켓을 증정한다.

팔도 비락식혜, '김보성편' 유튜브 260만건 조회

최근 팔도와 중견 독립광고대행사 코마코(대표 이대림)가 제작한 '비락식혜' 광고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팔도에서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선보인 이 광고는 3일만에 15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19일 기준으로 조회수 260만 건을 달하고 있다.

비락식혜는 주 소비층인 40~60대 세대에서 넘어 젊은 세대까지 어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의리' 시리즈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보성을 광고모델로 발탁, 유머광고를 통해 이 세대의 청춘들과 교감하고자 했다.

제작을 담당한 코마코는 대중을 웃길 줄 아는 광고대행사이다. 유승룡의 남사라방, 김준현의 왕뚜껑 광고 등을 통해 유쾌함과 재미로 광고계를 평정하고 있다.

/정영일 기자

"지금이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동국대 교법사 '힐링의 멘토' 마가 스님

"자비로운 그 손길이 참다운 불심이요 너그러운 말 한마디 그윽한 향이로다 속들이 곱고 고운 성실한 그 마음이 영원히 변함 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출근 길에 어느 스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마음이 급했지만 찬찬히 문자를 읽어보니 차분해지면서 오늘도 웃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그 스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힐링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있었다. 맑은 날씨만큼 밝지 않은 세상사에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힐링의 멘토'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 교법사)에게서 진정한 힐링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하루하루 뿌려지는 웃음과 행복

"문자는 잘 받고 있지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 동국대 정각원을 찾아 자리에 앉는 순간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몇 번 통화 후 스님으로부터 오는 '오늘의 명상'이라는 문자 얘기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은 것이다.

"사실 진리를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관념적이고 머리로만 하는 수행으로 고민하던 중 나를 되돌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깨달은 스님은 그 즉시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로 보내는 오늘의 명상이다. 문자를 읽는 시간은 1초지만 1초라도 웃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지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한다고 한다. 웃음의 씨앗을 뿌리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실천하는 셈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잠시 눈을 감으면 됩니다. 1초의 순간 자연스럽게 화가 풀리고 짜증은 가라앉거든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즉 화와 짜증, 욕심과 고민을 버리는 것이 깨달음과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어 스님은 마음의 안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 힐링도 이 깨달음과 마찬가지란다. 마음을 기댈 수 있고 치유를 위한 힐링으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힐링도 깨달음과 똑같아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편안한 곳을 찾는 것인데 이는 배우거나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행복을 얻는 과정이 힐링이기 때문에 마음 속 욕심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 해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을 들여다 봐야 하고 자신 안의 응어리, 문제, 고민을 풀어가야 하는 법. 그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깨닫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서 스님은 한국형 명상으로 잘 알려진 '자비명상'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힐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비명상은 심지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지저분함을 털어내고 나를 닦는 시간인 거죠. 막혀있는 가슴을 뚫어내기 위한 첫 걸음이자 스스로 나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스님은 종교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종교의 역할 중 하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종교를 치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치유를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지요."

스님은 자연스럽게 올해 목표까지 얘기했다. 힐링과 치유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전국순회 등 계획 중이고 경기 안성에는 명상센터를 건립한다. 특히 스님은 각계각층 멘토와 사람들이 만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53순례를 통해 여행 힐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도 저는 하루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웃음과 행복의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큰 진리와 치유를 재차 강조한 스님은 웃으면서 일하라며 직접 자신의 캐릭터를 그려 기자에게 건네주었다. 사회 안팎의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시끄러운 시기… '지금이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라는 스님의 말을 한 번은 되새겨봐야 할 때다.

'힐링의 멘토'로 알려진 마가 스님은 진정한 힐링을 위해서는 나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진영 기자 son@

/유재희 기자 hesu@metroseoul.co.kr

야외 활동 후 피부 관리법은?

피부 진정·쿨링 중요

야외 활동량이 많아지는 5월은 햇조량이 늘어나면서 자외선과 피부 건조에 노출되기 쉬워 세심한 피부 관리가 필요한 때다.

한여름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아웃도어 활동 후에는 클렌징부터 피부 진정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야외 활동 시에는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체온이 올라가면서 피지가 왕성하게 분비되고 모공이 탄력을 잃고 늘어지기도 쉽다.

모공 속 깊숙이 쌓인 노폐물과 블랙헤드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는 클렌징 오일과 미세하고 부드러운 거품입자의 클렌징 폼 제품으로 더블 클렌징을 해야 한다.

꼼꼼한 세안 후에는 모공 수렴 및 진정 토너를 화장 솜에 묻혀 피부 결을 따라 닦아내면 잔여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또 5월은 낮에 한여름 날씨처럼 기온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땀이 나고 건조해지며 탈수 피부가 되기 쉽다. 수분을 빼앗긴 탈수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주름이 생기기 쉬우므로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쿨링 케어와 수분 밸런스를 회복할 수 있는 수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수분 제품의 경우 바르는 즉시 체온을 내려주는 쿨링 기능과 가볍고 산뜻하게 수분을 전해주는 여름용 제품을 사용한다. 또 수분 케어 전 부스팅 에센스를 함께 사용하면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 외출 후에는 얼굴이 군데군데 붉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이 유독 붉어지는 이유는 얼굴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찬물로 세안한 후 쿨링 진정 효과가 있는 미스트와 크림을 사용한다. 냉장고에 미리 넣어뒀다가 차갑게 만든 마스크 팩을 얼굴에 올려두거나 슬리핑 팩을 바르고 숙면을 취하는 것도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정혜인 기자 hjung@

월드컵의 벅찬 감동,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내달 'Esta Bom Korea 월드컵 패키지' 선보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코앞으로 다가온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맞이 다음달 한 달 동안 'Esta Bom Korea 월드컵 패키지'를 선보인다.

'Esta Bom'은 브라질 말로 '매우 좋다'는 뜻으로 호텔은 이름에 걸맞게 르네상스 스위트룸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패키지를 구성했다. 또 핫윙과 맥주가 룸서비스로 준비되며 미니 태극기와 붉은 악마 머리띠까지 제공된다. 특히 호텔은 경기가 새벽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체크아웃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텔은 월드컵 기간인 다음달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아웃도어 비어가든에서 'Happy 39 세트 메뉴'를 선보인다. 2700cc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아웃도어 비어가든의 베스트 셀러 메뉴를 3만 9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222-8500 /황재용 기자

동아오츠카, '오~라떼 코리아' 실시

사연 응모하면 '건소형'이 직접 학교 방문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청소년 응원 이벤트 '오~라떼 코리아'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을 응원하고 즐거운 생활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사는 사연 응모를 통해 '건소형'의 깜짝 학교 방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벤트 응모는 오는 7월 20일까지이며 동아오츠카 이벤트 페이지(www.donga-otsuka.co.kr)에 접속한 후 우리 학교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 등을 간단한 사연으로 작성하면 된다.

박민희 오라떼 브랜드 매니저는 "예민하고 감성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오라떼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metro entertainment E

'발랄' 소녀에서 '섹시퀸'으로

첫 솔로앨범 발표한 지연

그룹 티아라 막내 지연 잊어라
'뽕끼' 지우고 달콤·몽환 매력
골반 댄스 포인트… S라인 강조

소녀에서 숙녀로.

그룹 티아라의 막내 지연(21)의 발랄함은 사라졌다. 그동안 티아라는 중독성 강한 '뽕끼' 사운드에 맞춘 댄스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솔로 가수 지연은 달콤하면서도 몽환적인 섹시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솔로 데뷔를 통해 섹시퀸으로의 도약에 나선 지연을 만나봤다.

◆ 첫 솔로 노력의 결실

지연의 첫 솔로 미니앨범은 준비 기간만 6개월 가량 소요됐다. 그만큼 이번 앨범에 대해 정성을 쏟았다는 증거다.

"그룹에서 처음 나서는 솔로 활동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겁도 많이 났어요. '왜 내가 첫 번째 일까'라는 생각에 잠도 못잤죠. 그런데 지금은 오랜기간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오히려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타이틀곡 '1분 1초'는 음원 1위 보증수표 이단옆차기가 완성했다. 그러나 막내 지연이 받아들이는데 부담감은 있었다.

지연은 "그룹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실제 성격도 비슷해서 굉장히 어색했다"며 "그래도 '지연에게 파워풀함과 섹시함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지연은 타이틀곡 안무는 물론 의상 콘셉트 결정에까지 직접 참여하며 솔로 지연의 모습을 완성했다. 그는 "무대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좋지만 '열심히 준비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 티아라 활동과 차별화

그룹 티아라는 한번 들으면 중독되는 후크에 온국민이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안무로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해 왔다.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이 대표적이다. 섹시한 노래는 없지만 복고풍 멜로디에 합을 맞춘 안무로 귀여운 여동생 같은 느낌이 강했다.

지연은 이 같은 티아라 색깔을 완벽하게 지웠다. 20일 발표되는 '1분 1초'는 몽환적인 댄스곡이다. 그는 "특별히 콘셉트를 섹시로 잡지 않았다. 몽환적이고 절제된 섹시함에 초점을 맞췄다"며 "안무를 보면 섹시함보다 파워풀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단옆차기가 쓴 '1분 1초'는 여전히 쉬운 후렴구로 이뤄졌지만 섹시한 여성미를 더욱 끌어올렸다.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의상, 짙어진 메이크업에 절제된 안무는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노래가 진행되는 내내 골반을 크게 움직이며 시선을 압도하고, 재킷을 벗어 들어올려 S라인을 과시한다.

그는 "골반을 사용해 라인을 드러내는 안무가 포인트다. 그런데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아서 굉장히 어색했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 솔로 여가수 경쟁

지연은 비슷한 시기에 솔로 여가수로 활동에 나선 전효성·지나와 피할 수 없는 경쟁에 돌입한다.

재미있게도 세 사람 모두 작곡가 이단옆차기에게 곡을 받았다. 지연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효성과 지나의 노래를 들었는데 전혀 느낌이 달랐다"며 "경쟁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솔로 활동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는 "가희 언니처럼 여성들이 봤을 때 멋있다고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가수가 되고 싶다"며 "소녀같은 느낌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아시킨 매력을 감춰뒀다. 마지막 앞으로 보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깜짝 변화를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완전체 티아라 컴백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와 효민 언니의 솔로 활동이 끝나면 컴백할 것"이라며 "여름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은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윤은혜·코어콘텐츠미디어 디자인/홍승지

'무한재능' 김수현 "어느 별에서 왔니?"

드라마·영화 흥행 보증수표 검증
아시아 팬미팅서 노래·입담 뽐내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배우 김수현은 드라마 '드림하이'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 영화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탄탄한 인기력을 입증했다. 이어 아시아 팬미팅 투어 '2014 김수현 아시아 투어 퍼스트 메모리즈'에서 노래실력과 무대매너로 팬심을 흔들었다. 그야말로 만능엔터테이너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탄탄한 인기력 출연작 대박

김수현은 미쓰에이 수지와 호흡을 맞춘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성공적으로 아역 이미지를 벗으며 한층을 넘겼다. 최고 시청률 17.9%로 동시간대 1위로 종영한 '드림하이'는 시즌 2까지 제작되기도 했다.

신의 한 수로 꼽히는 '별그대'의 바로 전 작품인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은 이훤 역을 맡아 '해품달' 신드롬을 일으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해품달'의 최고 시청률은 42.2%이나 나왔다. '별그대'에서 외계남으로 변신한 김수현은 전지현과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나가며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수현은 영화계의 인적에 성공했다.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임달화, 김해숙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은 '도둑들'에 출연할 기회를 얻은 그는 전지현과 화끈한 키스신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2012년 7월 25일 개봉한 이 영화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1298만 관객을 동원했고, 김수현은 천만 배우 대열에 합류했다.

김수현의 첫 주연 영화인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개봉 당시 한국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 최단 기간 100만 돌파 등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고 695만 명을 극장에 불러들이는 기염을 토했다.

◆ 완벽한 무대매너 팬심 흔들

지난 18일 일본 팬미팅을 끝으로 막을 내린 아시아 팬미팅 투어는 김수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검증한 자리였다. '별그대'로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재 점화시킨 김수현은 드라마 종영 후 3개월의 투어 대장정에 나섰다. 김수현은 이번 투어를 통해 김수현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기는 물론 노래 실력과 화려한 입담까지 입증했다.

김수현은 투어의 마지막날 솔직담백하고 유쾌한 토크로 2시간을 보냈다. 감미로운 노래 선물,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 등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추억을 채워갔다. 특히 김수현은 팬미팅의 엔딩곡인 '너의 집 앞'을 4000명의 팬들과 합창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김수현은 "투어를 마무리 한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드라마 한 작품을 끝낸 느낌"이라며 "팬미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어는 지난 3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약 3개월 간 아시아 7개국(서울, 대만,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9개 도시에서 총 5만여 명을 동원해 김수현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마친 김수현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훈기자 yna@metroseoul.co.kr

서태지 올 가을 5년 만에 컴백

'문화 대통령' 서태지가 컴백한다.

웰메이드예당은 19일 "서태지가 웰메이드예당의 공연 전문 자회사인 쇼21과 컴백 및 전국투어 공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올 가을 9집을 발표하고 서울 컴백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투어를 진행한다.

웰메이드예당은 "서태지의 단독 공연은 2009년 이후 5년 만의 무대로 팬들의 기대가 높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연 제작은 과거와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맡을 예정이다.

서태지는 그동안 대형 록페스티벌인 'ETPFEST'와 서태지 심포니 공연 등을 제작하여 규모, 연출, 음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번 투어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09년 발표한 8집 이후 오랜 공백기를 보낸 서태지는 조만간 구체적인 컴백 시기를 밝힐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조현아(왼쪽)와 에릭 베넷이 18일 서울재즈페스티벌에서 함께 무대를 꾸미고 있다

에릭 베넷·조현아 환상 하모니

서울재즈페스티벌 무대

팝스타 에릭 베넷과 어반자카파의 조현아가 서울재즈페스티벌서 환상의 무대를 선보였다.

에릭 베넷은 지난 1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서 열린 서울재즈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공연을 앞두고 1만2000여 명의 관중이 몰려드는 등 에릭 베넷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는 자리였다.

화려한 가창과 무대매너로 관중을 사로잡은 에릭 베넷은 "노래 잘 하는 가수"라며 조현아를 소개하며 그의 출세작인 '스펜드 마이 라이프 위드 유'를 함께 열창했다. 관중들은 R&B 거장과 개성넘치는 감성보컬의 만남에 열광하며 박수를 보냈다. 80여 분의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온 에릭베넷은 대기실을 찾은 조현아에게 "매우 감성 풍부한 목소리를 가졌고 같이 한 듀엣곡을 조현아만의 색깔과 애드리브로 훌륭하게 소화했다"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평소 에릭 베넷의 팬이었던 조현아는 "영광이었다. 다신 못 올 기회인 것 같다.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반자카파 역시 이날 60여 분간의 공연을 펼쳤으며 19일 발매된 싱글 '라이크 어 버드'를 소개하며 무대를 내려왔다.

/정성훈기자

팬텀 첫 정규앨범 발표

3인조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사진)이 정규앨범 '팬텀 파워'를 발표했다.

1979·1986·1990년생인 키겐, 산체스, 한해는 각기 다른 세대를 대표해 색다른 시각과 다양한 시도로 첫 정규앨범을 풍성하게 채웠다. 타이틀곡 '오늘따라'는 팬텀만의 감성코드가 잘 담긴 노래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 피처링을 맡았다. 뮤직비디오에는 AOA의 혜정이 함께하며 팬텀을 지지했다.

'오늘따라' 뮤직비디오는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좋아보여', 에일리의 '보여줄게' 등을 연출했던 문승재 감독이, 앨범사진은 국내 힙합신의 대표 포토그래퍼인 부바 아트워크는로우디가 맡아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선공개곡으로 발표한 한해의 첫 솔로 싱글 '깊어질래'는 산이와 태완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산체스가 작사·작곡한 첫 솔로곡 '너와', 신예 걸그룹 마마무의 휘인이 참여한 키겐의 솔로곡 '언더에이지스 송', 팬텀만의 재기발랄함을 느낄 수 있는 '뮤직 와이프' 등 7곡의 신곡과 기존 발표곡을 포함해 12곡이 앨범에 수록됐다.

/유순호기자 sune@

끼 많은 그녀들 '쾌청 연기' 예보

기상 캐스터 출신 김혜은·안혜경·박은지

최근 연기자로 옮긴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김혜은은 얼마전 종영한 JTBC 월화극 '밀회'에서 재벌가의 철없는 딸 서영우를 맡아 김희애와 심혜진에 버금가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이어 현재 방영 중인 MBC 월화극 '트라이앵글'에서 허영달(김재중)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서는 고기집 여사장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김혜은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연기자로 전업했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단역부터 조연까지 지분히 배우의 길을 걸어온 그는 2012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 밀리지 않는 여사장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는 단아한 이미지였던 기상캐스터 시절과 상반된 강인한 캐릭터를 주로 맡으며 안방극장의 '신 스틸러(Scene Stealer)'로 자리매김 중이다.

박은지는 연기와 예능을 두루 섭렵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

2005년 MBC에 입사한 박은지는 큰 키와 귀여운 얼굴로 연예인보다 더 예쁜 기상캐스터로 많은 팬들을 확보했었다. 2012년 프리랜서로 전향한 그는 오락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SBS '숫찾사'에 등장하며 남다른 끼를 보여줬다.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 김혜은

박은지

그는 지난해 tvN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에 출연할 당시 부족한 게임 어드도를 채워주는 과감한 승부사 기질로 2회 연속 데스매치(탈락자 결정전)에서 살아남으며 최종 5인까지 올랐다. 박은지의 활약상은 드라마로도 이어졌다. 현재 tvN '꽃할배 수사대'에서 하루아침에 70대 노인으로 변한 이준혁(이순재) 형사의 약혼녀 한유라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안혜경은 김혜은의 후계이자 박은지의 선배로서 프리 선언 후 쇼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연기도 합격점을 받으며 맹활약 중이다. 안혜경은 김성주 전 MBC 아나운서와 함께 엠넷 '슈퍼스타 K'에서 기상캐스터 출신다운 진행 실력을 뽐냈다.

또 지난해 KBS '학교 2013'에선 양호교사 역할을 맡아 감초 냄새를 톡톡히 풍기기도 했다. 그는 최근 연극 '가족입니다'에서 주인공 김진 역을 맡아 한층 깊어진 연기를 보이고 있다.

/김지민기자 jmkim@metroseoul.co.kr

유나킴, 타이거JK·윤미래가 '찜'

유나킴(사진)이 오는 23일 신곡 '러브 미 러브'를 발표한다.

힙합 뮤지션 부부 타이거 JK와 윤미래가 타이틀곡 '이젠 너 없어도'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엠넷 '슈퍼스타K3'(2011) 출신인 유나킴의 '이젠 너 없어도'는 만남과 이별, 재회를 반복하는 오래된 연인들의 감정을 담은 곡이다. 섬세한 마음과 지쳐가는 관계를 작실적으로 표현했다.

타이거JK가 프로듀싱을 맡았고 감칠맛 나는 유나킴의 래핑과 감성적인 윤미래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프로젝트 '러브 미 러브'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뮤직비디오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소녀가 수많은 관중 앞에서 자신의 숨겨온 끼를 발산하는 영화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타이거 JK와 윤미래 래퍼 비지가 카메오로 출연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용필·이효리 비와 작업한 루렌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러브 미 러브'는 23일 정오 각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티저 영상은 20일 유나킴의 소속사 뮤직K 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타이거JK는 유나킴의 '이젠 너' 반해 "마치 윤미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욕심이 난다"며 멘토를 자청했다. 윤미래도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다" "'슈퍼스타K' 심사위원일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효진기자

정은지 '트로트의 연인' 낙점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가 KBS 2TV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지현우, 신성록, 손호준과 연기호흡을 맞춘다.

정은지는 작품에서 트로트의 여왕으로 성장할 최춘희 역을 맡았다. 최춘희는 아버지와 어동생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소녀 가장으로, 트로트 가수였던 엄마의 재능을 이어 받은 차세대 트로트 꿈나무다.

앞서 정은지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과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을 통해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트로트의 연인'에선 본업인 가수로서 노래 실력도 선보여 캐릭터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작품은 트로트에 인생을 건 최춘희가 트로트를 경멸하는 최고 스타 장준현(지현우)과 만나면서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틱코미디 드라마다. '빅맨'의 후속 작으로 다음달 방송 예정이다.

/한효진기자

'배.스.트' 드라마 흥행 키워드

배우가 부른 OST, 몰입도 높여
현빈·이민호 이어 강하늘·박서준

배우들이 자신이 출연한 작품의 OST를 직접 부르는 이른바 '배.스.트'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못지 않은 노래 실력으로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배우 강하늘과 박서준은 19일 출연 중인 작품의 OST를 공개했다. 침체된 OST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강하늘(왼쪽 사진)은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의 OST '내게 남은 세 가지'에 참여했다. 극 중 주인공 박동주(이상윤)의 아역을 맡았던 그는 '내게 남은 세 가지'의 어쿠스틱 버전을 불렀다. 강하늘의 목소리와 어우러진 '내게 남은 세 가지'는 아련하고 가슴 아픈 첫사랑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가수 백아연이 부른 원곡이 풋풋한 첫사랑을 떠오르게 한 것과 또 다른 매력을 준다.

박서준(오른쪽)은 tvN 월화극 '마녀의 연애' 세 번째 OST '내 맘에 들어와'를 공개했다. 박서준은 '마녀의 연애'에서 국민 연하남으로 누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내 맘에 들어와'는 박서준이 작품에서 맡은 윤동하 역에 몰입해 부른 곡이다. 열네 살 나이 차는 극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진정성있는 감정 처리와 감미로운 멜로디, 달콤한 가사가 돋보인다.

'배.스.트'는 현빈 이민호 김수현을 통해 익히 주목 받았다.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참여했고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사이트 1위를 석권할 정도로 대중의 관심도 높다.

현빈은 '시크릿 가든'(2010)의 OST '그 남자'로 당시 아이유 씨스타 동방신기 등과 대등한 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이민호는 '상속자들'의 수록 곡 '여튼 사랑'을 불렀다. 그가 맡았던 김탄 역의 테마 곡으로 가슴 아픈 사랑을 담담하게 드러냈다.

김수현은 다수의 OST를 부른 정도로 가창력이 뛰어난 배우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수록 곡을 불렀다. 올 초 방영된 '별그대' OST인 '너의 집 앞'은 천송이(전지현)를 두고 자신의 별로 떠나야 하는 도민준의 감정을 농축한 애절한 곡이다. 드라마 인기가 절정에 다다를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한효진기자 jeon@metroseoul.co.kr

말레피센트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공세 재개

'말레피센트' '엑스맨' '트랜스포머' '혹성탈출' 개봉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가 다시 시작된다.

최근 '고질라'가 개봉한 가운데 앤젤리나 졸리의 첫 악역 변신으로 화제인 '말레피센트', 전 세계에서 흥행을 기록한 SF 블록버스터 시리즈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이 이달부터 줄지어 개봉한다.

29일 개봉할 '말레피센트'는 디즈니의 명작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 치명적인 저주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블록버스터다.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디즈니 역사상 가장 사악한 마녀 말레피센트를 연기했다.

제작진도 화려하다. '아바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2년 연속 아카데미 미술상을 수상한 로버트 스트롬버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또 원작 '늑대의 혼'을 의 단 셀러 왕영감독, 7차례 아카데미를 휩쓴 '혹성탈출', '맨 인 블랙'의 특수 분장 디자이너 릭 베이커가 참여했다.

22일 개봉할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사상 최강의 적이자 인류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 센티넬에 맞서기 위해 엑스맨들이 모두 모여 거대한 전쟁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SF 블록버스터다. 기존 시리즈를 탄생시킨 제작진이 다시 뭉쳐 최첨단 특수효과와 대규모 액션신을 선보인다.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는 전편보다 더욱 화려해진 액션신과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앞세워 다음달 26일 극장가를 찾는다. 시카고를 무대로 펼친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마지막 전쟁으로부터 4년 후 이야기를 그렸다.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와 유인원 간의 피할 수 없는 생존 전쟁을 그린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역시 전편보다 거대해진 규모와 최첨단 컴퓨터그래픽(CG), 완성도 높은 모션 캡처 기술로 7월 관객과 만난다.

◆한국 블록버스터와 흥행 대결 관심

이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개봉으로 6, 7월 극장가에는 외화와 한국 영화의 치열한 흥행 대결이 예상된다. 이 시기에 화려한 캐스팅과 제작진,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도 쏟아지기 때문이다.

5, 6월 '끝까지 간다'와 '우는 남자'가 개봉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에 하정우·강동원 주연의 '군도: 민란의 시대', 최민식·류승룡 주연의 '명량: 회오리바다', 김남길·손예진 주연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전도연 주연의 '협녀: 칼의 기억'이 극장가에 몰려온다.

올해 극장가는 유난히 외화가 강세였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1000만 관객을 모은 것을 비롯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캡틴 아메리카 2' 등이 흥행을 기록했다. '역린', '표적'의 개봉으로 5월에서야 한국영화가 뒤늦게 활기를 되찾은 상태다.

한국 영화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갈 지, 아니면 외화가 다시 강세를 탈 지 관심거리다.

/박선영기자 tsk0427@metroseoul.co.kr

김희원, '악역 본좌' 연기

배우 김희원이 원빈에 이어 장동건을 상대로 악역 연기를 펼친다.

'아저씨'에서 악랄한 장기밀매업자로 분해 차태식(원빈)을 분노하게 한 김희원은 '우는 남자'에서는 곤(장동건)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변실장 역을 맡았다.

제작진은 19일 "변실장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배신과 폭력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김희원은 미간의 주름 하나까지도 계산한 듯한 악랄한 표정 연기로 영화의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원의 이번 출연은 '아저씨'를 연출한 이정범 감독과의 인연으로 성사됐다. 이 감독은 "시골에 가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순박하기도 하지만 결정적 순간 무섭게 변하는 사람이 있다. 김희원에게는 그런 순박하면서도 180도 변하는 복합적인 느낌이 있다"며 김희원을 자신의 차기작에 캐스팅 했다.

다음달 개봉할 '우는 남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킬러 곤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타깃 모경(김민희)을 만난 후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액션 드라마다.

/박선영기자

'우는 남자'의 김희원

'역린' 혜빈 이상헌 이다인

영화 '역린'에서 혜빈의 궁중 이상헌으로 등장한 배우가 견미리의 딸 이다인(사진)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견미리의 셋째 딸이자 신인배우 이유비의 동생인 이다인은 '역린'에서 정조(현빈)가 세손 시절에 첫눈에 반한 지밀나인 수련 역으로 등장했다. 당시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순수한 미소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다인이 등장한 신은 정조가 상책과의 추억을 회상한 명장면이다. 정조가 책을 읽다 수련을 눈여겨 보는 것을 눈치챈 상책이 "전하의 승은이옵니다"라고 말하자 정조가 부끄러워하는 장면으로 관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역린'은 정조 즉위 1년 정유역변을 모티브로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아야 하는 자, 죽여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과 역사 속에 숨어있던 24시간을 그렸다.

/박선영기자

칸 초청 '끝까지 간다' 흥행 청신호

할리우드 리포터 "고품격 범죄 영화" 극찬

제67회 칸 영화제 감독주간 부문에 초청받은 이선균 주연의 영화 '끝까지 간다'가 29일 개봉을 앞두고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국내 시사회 후 평단의 극찬을 받은데 이어 18일 칸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후 해외 평단에서도 뜨거운 호평과 찬사를 받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고품격 한국 범죄 영화 칸에 오다'라고 한 줄 감상을 전했다. 또 "폭주하는 서스펜스와 블랙 유머가 만나 완성된 한시도 예측할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작품", "에너지 넘치며 혼을 빼놓는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라고 극찬했다.

스크린 데일리는 "신선하면서도 극도의 재미를 선사하는 '끝까지 간다'는 정밀하게 짜여진 설계와 재치 있는 각본으로 눈을 뗄 수 없게 한다"고 호평했다. "특히 영화 전반부는 영리하면서도 섬세하게 빚어져 칸 영화제 감독주간 프리미어에서 주목받았다"며 현시의 뜨거운 반응을 함께 전했다.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서도 절박한 느낌을 주는 이선균과 악역을 실감나게 연기한 조진웅 모두 강렬한 인상을 보였다"며 배우들에게도 찬사를 보냈다.

배급사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는 19일 "칸 상영제에서 이례적으로 825석 전좌석이 매진됐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관객과 취재진은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보냈다. 김성훈 감독의 기자회견에서는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실수로 저지른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사 고건수(이선균)가 정체불명의 목격자의 등장으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자 위기에 몰리는 이야기를 그렸다.

/박선영기자

‘돌아온 몬스터’ 뉴욕 습격

류현진 부상서 복귀 22일 메츠전 등판

LA 다저스 류현진(27)이 마운드에 돌아온다. 오는 22일 뉴욕 메츠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지난달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24일 만의 메이저리그 등판이다. 류현진은 당시 콜로라도전을 마친 뒤 어깨 통증은 호소하며 생애 첫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19일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인 MLB 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을 22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뉴욕 메츠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시키겠다고 밝혔다.

예상됐던 복귀전이다. 류현진은 지난 17일 다저스의 마이너리그 훈련장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카멜백랜치에서 가진 시뮬레이션 피칭에서 75개의 공을 무난하게 던지며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잭 그레인키, 클레이튼 커쇼, 댄 하렌 등 팀내 붙박이 선발들의 등판 순서를 흔들지 않고 류현진을 복귀시킬 수 있는 경기는 22일 메츠전 뿐이 없었다. 류현진의 복귀로 임시 선발로 뛴 폴 마홀름은 다시 불펜으로 돌아가게 됐다.

류현진이 상대하게 될 메츠는 올시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메츠는 이날 현재 20승23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행보가 좋지 않다. 이날 워싱턴전까지 최근 5경기에서 1승4패에 그쳤다. 이 기간 경기당 평균 2.0득점에 그치는 등 극심한 타선 부진에 시달렸다. 그만큼 공격력이 약한 팀이라는 뜻이다. 내셔널리그 15개팀 가운데 팀타율 0.229로 14위, 팀홈런 29개로 13위다. 공격 지수가 대체적으로 리그 하위권이다.

주전 타자중 타율 3할을 때리는 선수는 다니엘 머피(0.318)밖에 없다. 간판타자 데이빗 라이트는 타율 0.287, 2홈런, 25타점에 그치고 있다.

류현진과 맞대결을 펼칠 메츠 선발은 신예 제이콥 디그롬(26)이다. 지난 16일 뉴욕 양키스전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오른손 투수다. 당시 양키스전에서는 7이닝 4안타 1실점으로 잘 던졌음에도 팀이 0-1로 패배했다. 다저스 타자들도 처음보는 투수이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올시즌 메츠와 처음 맞붙는 류현진은 지난해에는 두 차례 등판해 1승을 올린 바 있다. 4월 26일 첫 대결에서 승리는 올리지 못했으나 7이닝 동안 8탈삼진과 3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고, 8월 14일 홈경기에서는 7이닝 5안타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신범순기자 jose@metroseoul.co.kr

이천호의 베이스볼 카페

응원문화 재점검 기회

야구장이 소란하다. 이 구단이 선국민적인 세월호 희생자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응원을 자제하고 있다. 응원 단장의 응원과 치어리더들의 율동이 사라졌다. 귀를 찢을 듯한 스피커 소리와 응원 노래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참에 야구장 소음을 줄이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들이 힘을 받고 있다.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선정적인 치어리더들의 율동이 없으니 야구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리그는 이닝 교대시간에 치어리더와 대형 스피커를 이용한 집단 응원은 없다. 서포터스들의 자발적 응원만이 있을 뿐이다. 그저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야구만 즐기는 문화다. 야구장 소음은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준다.

특히 잠실구장은 야구장 소음 문제의 근원지로 꼽혀왔다. 흠 관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지방구장과 달리 양 팀의 응원전이 저절로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홈팀이 이용하는 스피커의 음량이 큰데다 원정 팀도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맞불을 놓는다.

한 베테랑 KBO 심판은 "그나마 공수 교대 시간의 소음은 봐줄 수 있다. 경기중 투수들이 투구를 하는 사이에도 스피커 소리를 크게 틀고 응원하는 경우가 있다. 경고를 해도 그때 뿐이다. 이번에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소음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어리더 응원은 한국야구의 문화로 정착했다. 치어리더들의 응원을 즐기려고 야구장을 찾는 팬들도 많다. CF 모델로 발탁 받은 스타 치어리더도 등장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옷차림과 율동은 항상 선정성에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무작정 치어리더 응원을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노동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적이지 않는 수준으로 바꿀 필요성은 있다.

/이천호 야구전문기자

추신수 10경기 연속 삼진 ‘끝’

멀티히트 출루율 1위 탈환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연속 경기 삼진을 끊고 출루 본능을 깨웠다.

추신수는 19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에서 3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3타수 2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골랐다. 또 타점 1개와 득점 2개를 추가했다.

전날까지 10경기 연속 삼진으로 선구안이 흔들렸던 추신수는 이날 12일 만에 멀티 히트를 때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시즌 타율은 0.303에서 0.311(135타수 42안타)로 올랐다. 출루율은 0.427에서 0.435로 올라 호세 바티스타(토론토, 출루율 0.433)를 밀어내고 다시 아메리칸리그 이 부문 1위에 등극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과 7회 미치 모어랜드의 결승 2점 홈런을 앞세워 6-2로 승리하며 4연패에서 벗어났다.

1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투수 키를 넘어 유격수 앞쪽에 떨어지는 타구를 날렸다. 6회 볼넷으로 출루한 추신수는 4-2로 승기를 잡은 8회 4번째 타석에서 쐐기의 2루타를 터뜨렸다. 추신수의 시즌 득점은 22개, 타점은 12개로 늘었다.

/유순호기자 suno@

‘7’ 받은 ‘박지성 후계자’ 김보경

월드컵 대표 등 번호 확정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대표팀의 등번호가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칭스태프들이 회의를 통해 선수들의 등번호를 확정했다"며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선수들이 선호하는 번호를 위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박지성이 남겨놓고 떠난 7번을 누가 이어받느냐에 쏠렸다. 그 주인공은 지난 2011년 1월 박지성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할 때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김보경이 됐다.

박지성은 2006년 독일월드컵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7번을 달고 활약했다. 특히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는 7번과 함께 주장 완장을 달고 한국 축구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원톱 스트라이커 박주영(왓퍼드)은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2년 런던올림픽 때까지 줄곧 달아온 10번을 받았다. 이청용(볼턴)과 기성용(선덜랜드)도 각각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용한 17번과 16번을 다시 달게 됐다.

그동안 홍명보호에서 8번, 14번, 7번, 11번 등 다양한 등번호를 사용해온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은 전통적으로 공격수의 상징인 9번을 등에 새기게 됐다.

돌파가 빠른 선수를 상징하는 11번은 이근호(상주)에게 돌아갔다. 이근호는 2007년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을 당시 11번을 달아 이번에도 같은 번호를 선호했다. 김신욱(울산)은 자신이 선호한 18번을 배정받았다.

/정해원기자

◆축구 대표팀 등번호

▲GK= 정성룡(1번) 김승규(21번) 이범영(23번)

▲DF= 김진수(22번) 윤석영(3번) 김영권(5번) 황석호(6번) 홍정호(20번) 곽태휘(4번) 이용(12번) 김창수(2번)

▲MF= 기성용(16번) 하대성(8번) 한국영(14번) 박종우(15번) 손흥민(9번) 김보경(7번) 이청용(17번) 지동원(19번)

▲FW= 구자철(13번) 이근호(11번) 박주영(10번) 김신욱(18번)